

청취이해과정의 모형과 영어의 구어교육

A model of listening comprehension process and the teaching of spoken English

김 대 원*

Dae-Won Kim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what components of spoken language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th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in Korea and to suggest a model of listening process. Two types of tests were undertaken using spoken and written forms of English with secondary school teachers of English and college students. Findings: Hearing power has been generally neglected in the teach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Hearing power which can be thought as an active process is defined as an ability to transfer the sequence of discrete phonetic segments without word boundary into the sequence of words in phonemic representations by using both nonlinguistic factors and linguistic factors including perception rules based on phonetics and phonology. Vocabularies, hearing-speaking power, syntactic structures and idiomatic expressions are to be taught for spoken English. A model of listening process was suggested and discussed.

Keywords: Hearing, Listening, Speaking, Saying, Model of Listening Process

1. 서론

현존하는 문헌 (Brown, 1987; Krashen and Terrell, 1983; Rivers, 1981; Postovsky, 1987; Asher, 1969)에 의하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 (listening, reading, saying, writing) 중 청취이해 기능을 우선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청취이해가 잘 되면 나머지 기능에도 전이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취이해력을 지도하기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영어교사나 학생들이 영어 청취이해와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취이해 교육과 관련된 청취이해과정에 대한 모형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Dense and Pinson (1993)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어나는 스피치 체인 (speech chain, Figure 1.1, p. 5)을 (1) 언어학적인 단계 (linguistic level), (2) 생리적 단계 (physiological level), (3) 음향적 단계 (acoustic

* 부산대학교 영어교육학과

level), (4) 생리적 단계 (physiological level), (5) 언어학적인 단계 (linguistic level)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너무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용적이지 못하다. (1)에서 (3)까지는 화자의 입장에서 (3)에서 (5)까지는 청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취이해 지도를 위한 한국의 영어구어교육의 문제점과 교육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청취이해과정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어교육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찾아 내기 위해 중등학교 영어교사 16명과 대학생 40명을 중심으로 교사들에게는 구어체의 영어 (spoken English)를 두 번 들려주고 우리말로 그 뜻을 적도록 한 후 같은 구어체의 영어를 문어체로 보여주고 그 뜻을 적게 하였다. 대학생들에게는 교사들에게 사용한 것과 같은 내용의 영어를 들려주고 단어 단위의 음소적 표기를 한 후 우리말로 뜻을 적게 한 후 같은 영문을 문어체로 제시한 후 뜻을 적게 하였다. 학생들은 음소적 표기법과 음성적 표기법을 이수한 자들로 국립대학 2-3학년 학생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어실험자료는 TOEFL에 나왔던 문제로 어떤 음운을 주의 깊게 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청취이해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이 어휘력, 청음력, 문법, 영어적 표현법 중 어느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쉬운 어휘, 문법 (통사구조), 영어적 표현법, 음성실현 등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청취이해과정의 모형도는 지금까지의 음성학과 음운학의 연구와 영어교육에 중사한 경험과 현존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2. 청취이해과정의 모형

영어화자의 말을 듣고 귀에 들려오는 단어나 문장의 발음이 자신의 머리 속에 내재화된 단어나 문장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영어화자가 한말을 알아 듣지 못하게 된다. 비록 그 말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단어와 문법으로 구성된 쉬운 말일 지라도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은 청음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음향적인 소리의 연속적인 흐름이 청각구조를 거쳐 뇌에 들어오면 인지기관은 이것을 음성학적으로 실현된 음성의 연속체로 인지함과 동시에 강세 (stress), 성조 (tonic accent), 휴지 (pause)도 인지한다. 음성적으로 실현된 음성 (phone)의 연속체인 소리를 단어 단위의 독립된 음소 (phoneme)의 연속체로 인지하는 능력을 청음력 (hearing power)이라 한다. 이때 청자는 대화가 이루어 지는 언어 외적인 요인과 대화의 전후관계를 토대로 화자가 말할 대화의 내용을 예측 하면서 들려오는 음성적으로 실현된 독립된 소리의 연속체를 음소적 형태의 독립된 단어의 연속체로 재 구성한 후 통사구조를 끌어 내어 어휘와 통사구조, 강세 (stress)와 성조 (tonic accent), 그리고 휴지 (pause) 등과 비 언어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의미를 도출해 낸다. 정상적인 청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초 이내에 수행한다. Underwood (1996, p.2)는 말을 주고 받을 때 청자의 귀에 들려온 소리가 약 일초 동안 귀에 에코의 형태로 머물러 있다가 사라진다고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인지과정을 토대로 화자의 말을 듣고 뜻을 파악 할 때 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형을 그림 1처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자의 측면에서는 청취이해과정의 역순으로 발화과정을 생각할 수 있으나 3 단계에서 2 단계는 변이음규칙이 적용되고 2 단계에서 1 단계는 언어 외적인 생리학적 과정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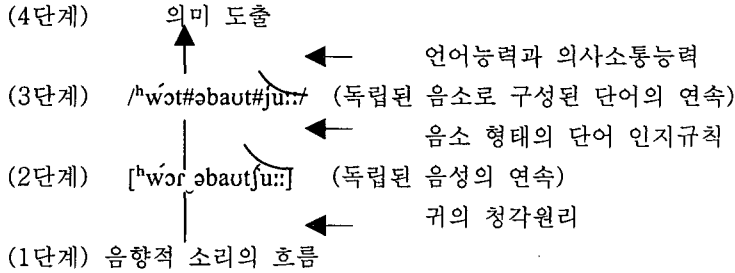


그림 1. 청취이해과정의 모형

의사소통을 할 때 청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언어 외적인 요인들과 주어진 사회의 문화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화자가 한 말에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Tell her.’와 ‘teller’는 음성적으로 발음이 똑같이 [tʰɛlə]로 실현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와 같은 언어 외적인 요소가 없으면 2 단계(그림 1)에 속하는 [tʰɛlə]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식별이 불가능하여 3 단계로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언어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tʰɛlə]가 /tɛl#hɜr/ (Tell her.)인지 /tɛlər/ (teller)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의 2 단계에서 3 단계를 도출할 수 있는 청음력은 어휘와 음성/음운적인 배경, 상황과 대화의 흐름에 의해 가능하다.

Widdowson (1987)은 청음력을 의미와는 관계 없이 언어의 음운이나 문법구조를 인지할 뿐인 것으로 이를 언어구조의 이해 (usage)라 하고 뜻을 파악하는 청취이해 (listening comprehension)를 언어사용 (use)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Widdowson (1987)의 청음 (hearing)은 통사구조의 인지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단위를 크게 잡아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사구조의 추출은 독립된 음소로 구성된 단어의 연속체를 도출한 후에 가능하다. 통사구조는 언어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된 음소로 구성된 단어의 연속 (3 단계)에서 의미 도출 (4 단계)을 위해 필요한 언어의 구성소 중 하나이다.

청음력을 단어 단위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mænɱjɔnɪrɪ] (만며느리)란 음성을 듣고 /mædmjɔnɪrɪ/ (만며느리)라는 음소적 형태로 전환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음성적으로 실현된 [n] (ㄴ)을 [n]의 음소 /d/ (ㄷ)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Underwood (1996 p.2)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녀는 청음력은 수동적인 것이며 청취이해력은 능동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음력이 수동적인 귀의 작동 원리에 의한 결과에 불과하다면, 위의 예에서 처럼 음성적으로 실현된 [n] (ㄴ)을 /d/ (ㄷ)으로 들을 수 없을 것이며 [n] (ㄴ)을 [n] (ㄴ)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음성적으로 실현된 [n] (ㄴ)을 /d/ (ㄷ)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청음의 단계에서 청자는 능동적으로 상황과 음소인지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음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어휘와 문법을 알고 있어도 청취이해가 잘 될 수 없게 된다. 청취이해의 과정을 영어의 예(그림 1)를 들어 살펴보면, [h'wɔr əbautʃu:] (위러바츄)라는 음성적으로 실현된 소리의 연결체를 듣고 /h'wɔt#əbaut#ju:/라는 독립된 음소로 구성된 단

어의 배열을 인지한 후 단어와 문법 그리고 강세와 성조와 비 언어적 요소에 기초하여 의미를 부여하면 청취이해 (listening comprehension)의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ˈwɔr əbaʊtʃu:]를 듣고 /ˈwɔt əbaʊt ju:/로 알아 듣지 못하면 what와 about와 you란 단어와 문법을 알아도 이 말의 뜻을 알아 듣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청취이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청음력, 어휘력, 문법력, 즉 언어능력 (linguistic competence)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상황과 주어진 언어의 표현문화에 맞는 표현 방식 즉, 의사소통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Shall we?’ [ʃætwi:]는 상황에 따라 ‘갈까요?’, ‘볼까요?’, ‘잡까요?’ 등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다.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들면,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인 집을 방문하여 노크를 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버스 타고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어떻게 오셨습니까?’를 ‘How did you come?’으로 알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실수였다. 한국어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어떻게’를 ‘How’가 아닌 ‘Why’나 ‘For what’으로 알아 들었어야 했다. 이것은 ‘My country’(나의 나라)를 ‘우리나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3. 청음력과 청취이해력

다음 구어체의 영문 (1) [pʰi:reweʒgɪvŋnəmɛrɪfɔhɛtɪŋpʰɪraʊtˈðɛfɔ:risɪfərə]을 중등학교 영어 교사에게 두 번 들려주고 우리말로 옮겨 적어 보라고 하였다. 16 명 중 한 사람을 제외 하고는 모두 뜻을 적지 못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미국인이었다. 그러나 같은 영문을 영어철자를 사용한 문어체로 제시 했을 때 모두 맞추었다. 이 결과로 영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청음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청취이해력을 위한 영어교육에서 청음력을 가장 등한시 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청음력, 청취이해력, 어휘력, 관용어 이해력, 문법력, 독해력 등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독해력 (reading)은 모든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영문의 구어체를 듣고 뜻을 쓰는 청취이해력 (listening)은 0%였다. 이것은 테스트에서 사용한 영문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관용적 표현 ‘put out’을 비롯한 어휘, 문법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음력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음성적으로 실현된 [mɛrɪ]을 /mɛdl/ (medal)로 들은 학생은 0%, [gɪvŋnə]에서 /ə/ (a)를 들은 학생은 3%, [pʰɪraʊt]에서 /put/ (put)을 들은 학생이 12%, /aʊt/ (out)을 들은 학생이 9%, [hɛlɪpɪŋ]에서 /hɛlpɪŋ/(helping)을 들은 학생은 12%, [fɔ:risɪfərə]에서 /fɔ:rist/ (forest)를 들은 학생이 19%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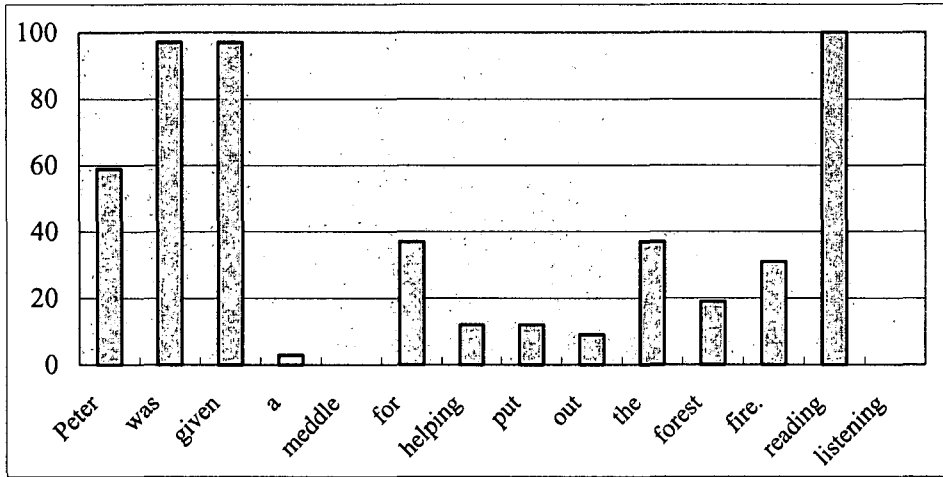


그림 2. [pɪˈtɜːr wəz ɡɪvɪn nɛmərl fɔːhɛəptɪŋpʊtˈaʊt ðəfɔːrɪsɪfəɪ]의 어휘별 청음력, 청취이해도와 독해력 (단위 = %).

강세 (stress)와 성조 (tonic accent), 자음이나 모음의 생략, 연음, 약화 현상, 음의 변이 등이 청음력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지만 ‘메달’과 같은 외래어에 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소한 인명, 지명 등도 난이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려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음성이 들어 있는 영어 특유의 표현, 단어, 구, 문장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경험에 의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훌륭한 교재와 훌륭한 교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청음력과 발음력

발음력 (speaking power)이란 단어나 문장을 읽거나 또는 말을 듣고 따라 할 때 영어 음성규칙에 맞게 변이음, 음의 약화현상, 탈락현상, 연음현상, 휴지 (pause), 영어적인 리듬 등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음소적 발음인 /wɒt əbaʊt juː/ (What about you)를 음성적으로 실현된 [wɒr əbaʊtju:]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언어조직을 소리로 나타내는 단계를 발음하기 (speaking) 즉, 발음법 (usage)라 하고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단계를 의사표현 (saying) 즉, 언어사용 (use)이라 하자. Widdowson (1978)은 소리나 언어 조직을 나타내는 단계를 발음하기 (speaking) 즉, 발음법 (usage)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조직을 발음법에 포함하기는 무리가 있다. 발음법은 음성/음운에 속하는 것이며 언어구조는 통사력에 속하는 것으로 발음력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음성학에 기초하여 정확히 듣는 연습과 정확히 발음 하는 연습을 훌륭한 교재로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청각과 발음기관에 이상이 없는 자라면 누구나 영어 발음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히 듣지 못하면 정확히 따라할 수 없다. 따라서 구어학습에서 청음력 훈련이 발음력 훈련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목표어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saying)하려면, 목표어의 어휘, 통사구조, 음성/음운에 기초한 발음, 목표어 특유의 표현방식 등 네 가지 구성소가 체계적으로 골고루 담겨 있는 교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교내시험이나 입학시험 등에서 발음력과 영어적 표현방법이 어휘와 통사구조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가지 구성소 중 어느 하나가 부족 해도 목표어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saying)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결론 및 제안

한정된 자료이긴 하나, 청취이해력을 위한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가장 등한시 되고 있는 문제는 청음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사를 위한 청음력 집중훈련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영어의 청취이해력이 향상 되려면 청음력, 어휘력, 문법력 (통사-의미구조) 그리고 영어적 표현법 등 네 가지 구성소를 학생이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네 가지 구성소가 체계적으로 골고루 담겨 있는 교재의 개발과 교내시험이나 입학시험 등에서 청음력과 영어적 표현법이 어휘와 통사구조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가지 구성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청취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음력과 발음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면 청취이해력 (listening)과 영어표현력 (saying)을 위해 영어원어권과 CNN, BBC 등을 가능한 많이 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음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관한 연구는 다음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청취이해과정의 모형 (그림 1)은 인간과 기계의 의사소통 시스템 제작 프로그램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Asher, J. 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3, 3-7.
- Brown, H. 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Denes, P. B. & E. N. Pinson, 1993. *The Speech Chain: The Physics and Biology of Spoken Language*.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Krashen, S. D. & T. D. Terrell.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CA: Alemany Press.
- Postovsky, V. A. 1974.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8, 229-239.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Underwood, M. 1996. *Teaching Listening*. London: Longman.
- Widdowson, H. 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접수일자: 2001. 10. 20.

게재결정: 2001. 12. 8.

▲ 김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우: 609-735)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Tel: +82-51-510-2613 (O)

E-mail: dwokim@hyowon.pusan.ac.kr